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 —『海槎日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한기*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日東壯遊歌」는 18세기 후반 사행의 경험을 기록한 가사작품이다. 18세기 후반의 사행문학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임란의 치욕으로 인한 적대감, 華夷論에 의한 부정적 인식과 華夷論 약화에 의한 긍정적 인식의 복합, 기술문명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日東壯遊歌」도 당대 사행문학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日東壯遊歌」만의 독특한 인식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日東壯遊歌」만의 독특한 인식은 작가의 성격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歌辭작품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본고는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작가의 성격과 歌辭장르의 특성에 따라 어떤 인식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행문학의 시대적 변화를 연구한 업적은 이해순(1996)의 논의가 대표적이다.¹⁾ 이해순²⁾은 통신사 문학에 나타

* 서울시립대 강사

1) 사행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使行漢詩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내용분류에 치중 한 면이 있다. 염경홍의 「정몽주의 명사행시에 관한 고찰」(『석당논총』 17집,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소, 1991), 정원표의 「신위 연행시 일고」(『홍익어문』 10·11 합집, 홍익대학 홍익어문연구회, 1992), 자영재의 「익재 연행시의 연구」(『동양학』 26집, 단국대학 동양학연구소, 1996) 등이 있는데, 염경홍(1991)은 정몽주의 명나라 사행한시

난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17세기 중반의 부정적 시각에서 18세기 전반에는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나타내고 18세기 후반에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된다고 하였다. 특히 趙曠이 쓴 『海槎日記』와 『酬唱錄』을 토대로 18세기 후반의 癸未通信使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신선이미지의 퇴영, 擅夷정신의 약화, 기술문명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대상자료가 임란 이후 통신사들의 한시를 모두 포괄한 것이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시대적 변화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사행문학 연구의 典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 연구는 이 시기 작가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지 개별 작가에 따른 차이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日東壯遊歌」에 대한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이성후(1988)와 박희병(1992)을 들 수 있다. 이성후³⁾는 「日東壯遊歌」의 내용상 특징을 否定的 對日觀, 肯定的 對日觀, 작가의 역사의식으로 나누고 부정적 대일관으로는 風俗과 禮節, 蔑視와 敵愾心, 詩文에 대한 低劣을 들었고 긍정적 대일관으로는 迎接과 宿供, 繁榮과 勝景, 實利와 厚生을 들었다. 이 논문은 김인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과 긍정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부정과 긍정적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박희병⁴⁾은 “일본도회의 번성함에 대한 사실적 서술과 함께 작가의 이용후생적 관심이 주목된다”고 하고 “김인겸이 고루한 華夷論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현실을 현실로서 인정하는 경험론자로서의 면모 역시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日東壯遊歌」에 華夷論을 극복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일본문화와 기술문명에 주목한 것으로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임란 관련 소재들, 關白을 포함한 일본인, 일본의 승경들을 포괄한 것은 아니다.

를 크게 ① 중별, ② 영사, ③ 鄉愁로 분류하였고 지영재(1996)는 이제현의 使行漢詩를 鄉愁, 역사(대외의식), 노정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였다.

2) 이해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6.

3) 이성후, 「日東壯遊歌研究」, 효성카톨릭대 박사논문, 1988.

4) 박희병, 「조선후기 歌辭의 일본체험 <日東壯遊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日東壯遊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작품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에 긍정과 부정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인겸과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점, 부정과 긍정적 인식의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작가의 특성과 歌辭의 특성이라는 양쪽 측면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김인겸과 다른 작가와의 일본 인식에 대한 비교, 「일동장유가」와 사행한시 또는 사행산문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기에 사행한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日東壯遊歌」는 1763년 8월에서 1764년 7월까지 일본을 여행한 癸未通信使行의 경험을 기록한 작품으로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는 趙曠의『海槎日記』, 成大中の『日本錄』, 元重舉의『乘槎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趙曠의『海槎日記』는 일기체이고 소재가 임란과 관련된 소재, 일본의 산수와 문물, 일본인과 관련된 것 등으로 「日東壯遊歌」와 유사하다. 그리고 金仁謙과 趙曠의 漢詩가 수록된 「酬唱錄」이 있다. 따라서『海槎日記』는 두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고, 유사한 소재 선택으로 작품에 따른 비교가 용이하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日東壯遊歌」의 비교 작품으로 趙曠의『海槎日記』를 선택한다.⁵⁾

2. 김인겸의 성격과 「일동장유가」의 표현상 특징

2-1. 김인겸의 성격 : 潔身의 士意識

이성후는『安東金氏世譜』를 통하여 김인겸이 庶出 후손이라는 점과 김인겸이 老境에 碍平縣監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庶子 後孫의 신분적 한

5) 「日東壯遊歌」는 심재완이 이본을 대교하여 校註한 「일동장유가」를 이용하고, 「海槎日記」는『海行攬載』권7에 있는『海槎日記』를 이용한다. 이하 본문에서 「日東壯遊歌」 인용문은 심재완 교주의『일동장유가·연행가』(교문사, 1984)의 面數를 표시하고 「海槎日記」는 일기의 年月日을 표시한다.

계”가 있으나 “강직하고 고집스러운 조선의 전형적인 선비”⁶⁾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인겸의 성격에 대한 묘색은 신분적 한계가 무엇이고 이것이 전형적 선비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선비상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인겸과 관련된 자료는 『安東金氏世譜』와 「日東壯遊歌」가 있다. 이 중 『安東金氏世譜』는 김인겸이 庶子 壽能의 孫이라는 家系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작가의 성격 규명은 「日東壯遊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김인겸은 公州에서 世居한 안동 김문의 庶出로 大科를 치르지 않고 進士로 지내다가 通信使行에서 돌아온 뒤에 縣監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것을 보아 김인겸은 비록 안동 김씨이지만 가문의 후광을 입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日東壯遊歌」에는 오히려 가문의식이 부각되어 있다.

김인겸이 가문을 내세우는 내용은 출발과 회정시 임금을 알현하는 부분에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임금 알현 부분은 “임금이 김인겸의 성명과 가문을 묻고 명조의 자손이라고 칭찬함—임금이 그의 뛰어난 詩才를 칭찬함”의 순으로 서술된다. 가문에 대한 부분은 임금이 김인겸에게 “壯洞大臣의 몇 寸인가?”라고 묻고 김인겸은 “故 相臣 忠獻公의 五寸姪”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인겸의 詩才에 대한 것은 출발시 謁聖試를 보고 임금이 거의 試才를 칭찬하고, 회정시 임금이 김인겸이 지은 시와 왜인들의 詩才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다. 김인겸은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文才가 유여한 놈 王왕이 있사오나 시율은 참혹하여 제술할 줄 모르더이다”라고 대답한다. 이 부분은 김인겸이 가문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뛰어난 인물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작가의 욕구가 반영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海槎日記』에서 임금 알현 부분은 本文과 「筵話」로 되어 있다. 本文은 조엄을 비롯한 三使臣과 임금의 대화, 임금의 傳教가 중심인 공식적인 내용이지만 「筵話」는 역관, 문사, 비장, 무관등을 포함한 사신일행에게 연회를

6) 이성후(1988), 앞의 논문, 22면. 박희병(1992)은 “정의감 강한 士人”이라고 하였다.
박희병(1992), 앞의 논문, 714면.

베푼 자리에서 임금과 나눈 대화가 중심인 비공식적인 내용으로 「日東壯遊歌」와 유사하다. 「筵話」는 사행의 출발시와 회정시로 나누어져 있다. 출발시 「筵話」의 내용은 영조가 二陵松柏이라는 시구에 감동하고, 好往好來를 써서 三使臣에게 주는 것이다. 회정시 「筵話」의 내용은 ① 영조가 세 역관과 徐有大를 致賀하고 풍속 인물에 대하여 질문하고 삼사신이 답변하는 것, ② 영조의 왜국 문사의 詩才에 대한 질문과 文士의 답변, ③ 영조의 역관·군관들에 대한 관심과 답변이다. 이 중에서 회정시 「筵話」의 ②와 ③이 「日東壯遊歌」와 유사하다. ②에서 영조는 제술관 南玉이 일본에서 文名을 떨친 점을 칭찬하고 왜인 문사의 詩才에 대하여 묻는다. 옆에 있던 조엄이 “왜인들의 시가 원숙한 편이 없어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⁷⁾ 영조의 질문과 남옥의 대답은 「日東壯遊歌」에서 임금의 질문과 김인겸의 대답과 일치한다. ③에서 영조는 군관 徐有大에게 그의 가문이 “徐命膺의 일가인가?”라고 묻는다. 조엄은 徐有大가 “徐命珩의 재종손”이라고 대답한다. 임금의 물음과 조엄의 답변은 「日東壯遊歌」에서 임금이 김인겸에게 “壯洞大臣의 몇寸인가?”라는 물음과 김인겸이 “故 相臣 忠獻公의 五寸姪”이라는 대답과 일치한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 「筵話」 중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을 보기 위하여 『英祖實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1> 『英祖實錄』 卷一百四, 英祖三十九年(1763) 八月丁亥(3일)

通信正使 趙曠 副使 李仁培 從事官 金相翊이 하직인사 하니 임금이 소견하였다. 친히 二陵의 松柏이란 글귀를 읊고 한동안 감동하였다가 이후고 ‘잘 갔다가 잘 오라(好往好來)’는 네 글자를 御筆로 세 폭을 써서 나누어주고 위로하여 보냈다.⁸⁾

7) 七月初八日復命入侍時…… 上曰南玉得名云矣 何者多作乎 對曰四人所作之數略同矣 上曰南玉作幾篇乎 玉對曰作千餘首矣 上曰壯矣 汝得彼人之詩來乎 對曰彼人先作 然後和之 故彼作果爲持來矣 趙曠曰 彼人之詩大抵無圓成之篇 無足可觀也…… 上曰徐有大卽徐命膺之親屬乎 對曰徐命珩之再從孫也 今番因徐有大柳達源 得以救幾敗之船矣(『海槎日記』「筵話」七月 初八日).

8) 丁亥…… 通信正使趙曠副使李仁培從事官金相翊解陞 上召見之親誦二陵松柏句興感者久之 以御筆書下好往好來四字 三幅分賜之慰諭以送.

출발시 영조가 二陵松柏의 글귀에 감동하고 好往好來라는 글을 써서 준다는 내용이 「筵話」와 일치한다. 회정시인 1764년 7월 8일조 『英祖實錄』의 내용은 영조가 三使臣에게 일본의 풍속과 인물에 대하여 묻는 것, 역관들에게 상을 주라는 傳敎이다.⁹⁾ 세 역관은 최천종 사건의 처리에 공이 있었던 崔鶴齡, 李明尹 등이다. 영조가 포상한 인물이 『海槎日記』의 「筵話」와 일치한다. 이것을 보아 『海槎日記』의 「筵話」가 역사적 사실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김인겸의 詩才와 家門의 내용은 『海槎日記』 「筵話」의 南玉과 徐有大의 내용이 김인겸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南玉(1722~1770)은 英祖3年(1727) 증광시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내다가 계미사행 때 製述官에 임명된 인물인데 일본문사 山根清이 쓴 『長門癸甲問槎』에서 계미사행 때의 巨擘¹⁰⁾으로 일컬을 만큼 文才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徐有大(1732~1802)는 본관이 達成으로 1757년 薦補로 선전관이 되고 1759년 무과에 급제하여 1763년 사행전까지 訓練院正을 역임하였고 사행 이후 지중추부사, 지의금부사, 훈련대장, 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南玉은 文才로 당대를 풍미한 인물이고 徐有大는 당대 권력가의 기문출신으로 관직이 현달한 인물이다.¹¹⁾ 『海槎日記』에 家門과 詩才가 뛰어난 사람이 각각 다른 인물로 되어 있으나, 「日東壯遊歌」에는 김인겸이 가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詩才도 뛰어난 인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인겸은 비록 안동김씨의 후손이지만, 가난한 생활¹²⁾을 하였고 詩文으로 南玉이나 成大

9) 戊午(8일)…… 召見回還通信三使臣正使趙曠副使李仁培從事官金相翊 問倭國風俗人 物並加其資員譯亦如例施賞(『英祖實錄』卷一百四, 英祖 四十年 甲申 七月 戊午).

10) 이해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 출판부, 290면, 1996.

11) 徐有大가 가문의 후광으로 벼슬이 현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서유대가 薦補로 선전관이 되었다는 점과 서명형과 서명웅이 등이 당대의 권력가로 벌벌 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서유대가 계속 관직을 유지하면서 승진하던 중 통신사 행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본 것이다.

12) 「日東壯遊歌」의 내용 중 동래부사가 베푼 연회에서 김인겸은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속 다 倭畫器요 水陸珍饌 다 올랐다 床마다 칼디수를 다 새로 만들었다 窮儒의 菜腸으로 먹을 길 전혀 없다 주리는 一家親戚 나눠 먹여 보고지고(「日東壯遊歌」 53면).” 김인겸은 먼저 “저 宴席 구경하소 壯하고 거룩하다”라고 연회의 호화스러움을 친탄한 다음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친찬을 친탄하기 위한

中과 같이 당대에 널려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이것은 김인겸이 南玉이나 徐有大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은연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안동김씨의 집안이지만 가문의 덕을 보지 못한 김인겸은 書記라는 직책을 맡는다. 書記의 직책과 관련된 사건이 元重舉가 하급관리인 김구영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다. 이 사건은 서출의 서기와 하급관리 사이의 알력을 다룬 것¹³⁾이다. 元重舉는 서기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갔다가 정사가 부르자 다시 돌아온다. 김인겸은 “土君子 出處行身 雍容不薄”인데 원증거가 서울로 간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서울로 갔으면 初志一貫하여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여 자신들이 土君子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김인겸과 正使의 대화이다.

<자료2> 「日東壯遊歌」, 63~66면

내 웃고 일어나서 上房으로 바로 가서 門 열고 들어가니…… 使相이 물으시되 “무슨 일로 그러한고.” “다른 일이 아니오라 元書記 일이올소이다.” “元奉事辱 본 일을 金進士 가로맡아 부질없이 生成하여 過舉를 하려는고” 내 다시 하온 말이 “그렇지 아니하오…… 한 書記辱보고서 處置를 못한 前은 行中の 네 文土가 다 먹은 작시오니 穩慢한 船將놈을 決棍 三度 겨우 하고 비록 汰去하다 하나 出代 아직 안했아오니 今明間 順風 얹어 急히 배를 타을 적에 引入하여 데려가면 書記去就들은 이를 것 없거니와 土校를 사랑하고 선비를 賤待하면 聽聞이 어떻겠소. 書記 노릇 하는 兩班 비록 심히 細微하나 林下에 讀書하고 自好¹⁴⁾ 하는 선비로서 尊본 땅에 앉았다가 배 탄 후 또 尊보면 하늘로 못 오르고 바다로 못 들지라 뒷발 디딜 平地에서 下直하고 가나이다.” 使相이 하오시되 “金進士 이런 말은 眞實로 意外로다 그대 入侍하여 特命으로 글지이고 異國에 보내시니 天恩을 感激하여 和國하고 돌아옴이 分義에 옮삽거늘 別般 是非 끌어내어 金進士 아니 가면 저 세 사람 어이 같꼬. 넷이 다 못 갈진대 使行인들 이어 같꼬. 나라 일 그릇되면 金進士 탓 아닌가.” “어저 그 말 마오. 옛부터 선비 出處 나라 일과 남의 일을 順便히 하려 하고 제 몸 먼저 더럽힌 일 史

겸사라기 보다 친찬과 자신의 처지를 對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겸은 자신의 처지가 채소만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자신의 일가는 짚주리고 있다고 말한다.

1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희병, 앞의 논문 참조

14) 심재완이 校註에 『日東壯遊歌』(교문사, 1984)에 ‘字號’로 되어 있으나, ‘潔身自好’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보아 自好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冊에도 없삽나니 다른 書記 일이라고 아니 돌아가게 되면 廉劣한 이 선비를 무엇에 쓰오리까.”

<자료3> 「日東壯遊歌」, 67~69면

또 끓어 여쭈오되 “小生이 愚直하와 ……尊 않고 唐突하오나 이미 돌아가게 되니 속에 있는 먹은 말씀 다 주워 하오리다. 官服 일로 일러 曰 戊辰年에 通信 갔던 文士에게 문사와 鶴氅衣 程子冠을 前例로 지었더니 저작에 乘船할 제上房의 한 補將이 高談 大言으로 나더러 이르오되 程子冠 臥龍冠은 使臣들 쓰시는 것 生心도 못 쓰리라. 내 듣고 痛憤하여 對答하여 이르오되 三百年 由來古規 그대 어이 모르고서 譯官이 못 쓰기에 그 놈과 符同하고 말뚝 戰笠 써 있기에 부끄럽고 用心내어 예부터 하는 官服 沮戱는 무슨 일고 그러면 書記들은 그대처럼 軍服할까. 그 補將 다시 하되 上下 貴賤 다르거든 等分이 없을소냐. 사또께 여쭙고서 다시 變通하여 服色을 定하리라. 들으매 憤이 나나 다루기 짚지 아니 忍憤하고 돌아와서 來頭를 보려더니 果然 數日後에 李補將의 말과 같이 官服 下敎 내리시니 유래하여 오는 제도 한 補將의 謂訴말로 一朝에 그릇 되니…… 어찌타 操節 키를 下類와 같이 하오.”

정사는 당사자의 일이 아닌데 김인겸이 끼어 둡을 비판하고, 김인겸은 원서기의 일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기집단과 하급관리 집단의 문제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김인겸은 書記라는 직책이 신분상으로는 “비록 심히 細微”하지만 “林下에서 讀書하는 선비”라고 하였다. 서기는 비록 서출의 신분이지만 그 행위는 士를 자처한다. 그리고 士는 “욕보는 것” “제 몸을 더럽히는 것”을 恥로 여겨 潔身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김인겸이 역관 비장들과의 갈등에서 士를 내세우는 점은 <자료3>에서도 확인된다.

<자료3>은 官服에 대한 시비이다. 김인겸은 「日東壯遊歌」에서 관복이 없는 처지를 언급한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인 일¹⁵⁾도 있지만 <자료3>은 서

15)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日東壯遊歌」 1763년 9월 1일조의 望闕禮 행사에 대한 기록이다. “初하루 望闕禮를 官服 없어 不參하니 正相이 이르시되 자네 비록 선비라도 司勇으로 불어 있고 王事로 길을 가니 朔望에 望賀禮를 아니키 不可하니 그대의 私力으로 章服을 어이할꼬 내 얻어 줄 것이니 以後는 參禮하고 儒生으로 官服하기 羞愧하고 憶悟하나 道理가 그러하니 辭讓치 못 할로다(「日東壯遊歌」, 41면).” 선비로 관복 입는 것이 不可하여 망궐례를 참여하지 않은 점과 벼슬을 없이 관복 입는 것이 羞愧와 憶悟이라고 하였다. 김인겸은 벼슬이 없는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출 사행원들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 김인겸이 官服으로 鶴氅衣를 준비하였더니 “상방의 한 補將”이 “학창의는 사신들이 입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김인겸은 상방의 한 비장이 역관과 부동하여 그들이 학창의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한 것이라고 밀하고 상방의 한 비장은 “上下 貴賤”이 다르기 때문에 書記들이 학창의를 입을 수 없다고 응대한다. 上房의 한 補將은 正使의 자제군관인 李梅이다.¹⁶⁾ 李梅는 조엄이 동래부사와 영남관찰사에 재직할 때 막하에 두었던 인물로 판서 李集의 庶出 孫子이다. 庶出이라는 점에서 김인겸과 신분이 같다. 譚官과 補將들은 書記들이 자신과 같은 서출임에도 鶴氅衣를 입어 자신들과 구별되는 신분을 유지하려는데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正使가 비장의 말이 옳다고 여겨 書記들에게 학창의를 입지 말게 한다. 이에 작가는 書記를 대하는 것이 下類와 같이 한다고 통분한다. 김인겸은 비록 서출이지만 같은 서출인 역관과 비장과는 다른 점을 士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겸은 士를 潔身하는 자로 보았다. 潔身은 潔身自守(守道 不與世陷乎邪)나 潔身自好(不同流合污)¹⁷⁾의 용법과 같이 세상의 邪惡한 것에 빠지지 않고 도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김인겸은 <자료2>에서 潔身을 “自好”라고 하여 道를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음”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덧붙여 “남에게 받는 辱을 耻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김인겸은 역관 비장들과는 구별되는 행위를 한다.

최천종 피살 사건에서 죄인이 대마도인 영목전장으로 밝혀지자 대마도주는 정사에게 죄인 한 사람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풀어줄 것을 간청한다. 정

16) 『海槎日記』, 「三使一行錄」에 “子弟軍官前縣監李梅 字伯春癸未生完山人 一房禮房”이란 기록이 있다. 趙曠은 『海槎日記』 1764년 5월 6일조에서 首譯인 崔鶴齡과 李命尹에 대하여 “사람됨이 단단하고 밤낮으로 계으르지 않고 꾀를 써서 사옥을 성공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李梅에 대해서는 “왜의 실정을 잘 알고 일에 따라 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히 내가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다만 의심하거든 말기지 말고 말기거던 의심하지 말라는 書傳의 교훈을 들 가슴에 두고 있으나…… 어찌 감히 자신하라”(初六日…… 李蓮川梅…… 習知倭情而然也 隨事能了 有如是矣 余非敢曰知人 但疑之勿任之勿疑八字書訓 尋常佩服…… 而亦何敢自信也)라고 하여 의심의 논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7) 『漢語大詞典』 6, 上海 : 漢語大詞典出版社, 1996, 116면.

시는 이것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하는데 이것이 訏傳되어 정사가 獄事を 축소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대마도주가 돌아간 다음 예방비장과 역관들은 서기들이 왜인과 내통하였다고 告發한다. 예방비장과 역관들이 서기들이 왜인들과 필담한 것을 빌미로 그들을 모함한 것이다. 이에 김인겸은 자신이 一片丹心을 흥중에 품고 있으며 阿諛苟容이나 亡君負國하는 이들을 개돼지처럼 본다고 하였다.¹⁸⁾ 뒤이어 김인겸은 首譯 崔鶴齡이 통역을 잘못하여 정사의 말이 와전되었다고 비난한다. 이것을 보아 亡君負國하는 이들은 역관이나 비장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이 회정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출발하는 것이 지체된 일이다.¹⁹⁾ 『海槎日記』에서 출발의 지체는 왜인 사공과 조선 사공의 논란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日東壯遊歌」에서는 순풍이 불었지만 裨將과 譯官이 왜인과 무역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역관들이 發船을 방해하자 종사관이 崔學齡과 玄泰翼을 불러 사공이 발선하는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라고 헐책하는 기록이 있다.²⁰⁾ 김인겸은 裨將 譯官들이 국가보다는 私慾을 앞세우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비장 역관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호색일화이다. 「日東壯遊歌」에 호색일화의 인물들은 종사장의 兵房軍官(任屹), 三房 伴人 洪善輔, 譯官 李彥琪이다.²¹⁾ 이들은 김인겸에 의하여 호색으로 조롱을 받거나 기생들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거나 서로 예쁜 기생을 다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김인겸은 종사관이 기생 ‘운정’을 자신의 방으로 보내자 평소의 먹은 뜻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며 물리치며²²⁾ 여색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을 보면 「日東壯遊歌」에서 김인겸은 서출이라는 점에서 비장 역관들과 신분이 같지만 자신이 그들과 다른 점을 士에 두고 있다. 士는 潔身에 두고 있는데 자신과 역관 비장들과의 행동을 대비하여 드러낸다. 비장·역관들은 왜인들과 내통하거나 私利만 일삼고 있으나, 자신은 一片丹心을

18) 「日東壯遊歌」, 247면.

19) 「日東壯遊歌」, 257면. 『海槎日記』, 1764년 5월 9일.

20) 「日東壯遊歌」, 259면.

21) 「日東壯遊歌」에는 호색인물에 대한 직위만 있고 구체적인 이름은 없다. 本文의 이름은 직위를 토대로 『海槎日記』의 「三使一行錄」에 의거한 것이다.

22) 「日東壯遊歌」, 37면.

유지하고 있다. 비장·역관들은 여색을 즐기고 있으나, 자신은 여색을 멀리 한다. 즉 士라는 점을 물질과 여색에 더럽혀지지 않는 潔身에 두고 있다.

2-2. 「日東壯遊歌」의 표현상 특징 : 작자의 표면화와 대상의 동작표현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는 날짜와 행선지를 표시하는 일기체이다. 날짜별로 대비해 보면 두 작품은 자신의 배가 풍랑을 만남, 일본인과 관련된 소재(일본인의 모습, 풍속, 일본과 접촉한 일), 임란관련 소재(신립, 김세령의 사적), 일본의 문물과 산수, 일본의 기술문명 등 소재선택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차이점은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한 서술이다. 풍랑과 관련된 소재는 ① 1763년 10월 6일조 釜山에서 佐須浦로 가는 도중,²³⁾ ② 1763년 10월 19일조 佐須浦에서 西泊浦로 가는 도중,²⁴⁾ ③ 1763년 11월 13일조 對馬島에서 壱岐島로 가는 도중,²⁵⁾ ④ 1763년 12월 3일 壱岐島에서 藍島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²⁶⁾이다.

① 1763년 10월 6일조 부산에서 좌수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서 “출발의 객수—풍랑의 바다 모습—풍랑에 의한 배 안의 모습”이라는 서술순서가 두 작품에서 일치한다. ③ 11월 13일조 對馬島에서 壱岐島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서 “일기선의 치목이 부러짐—배를 고치려고 분주함—정사가 국서를 봉안함—부기선이 지나감”이라는 서술순서가 두 작품에서 일치한다. ①의 내용 중 배 안의 모습에서 요강타구의 훌어짐, 사람들의 구토라는 세부항목이 두 작품에서 일치한다. ③의 내용 중 배가 난파될 지경에서 正使가 국서를 품안에 소중히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다. 『海槎日記』에는 정사가 속옷 안에 국서를 봉안하는데 대구 출신의 通引이 적삼을 던져 액을 막자고 하자 정사가 “死生이 어찌 여기 매였겠는가”라고 거절한다는 세부

23) 「日東壯遊歌」, 85~87면. 『海槎日記』, 1763년 10월 6일.

24) 『海槎日記』, 1763년 10월 19일.

25) 「日東壯遊歌」, 123~127면. 『海槎日記』, 1763년 11월 13일.

26) 「日東壯遊歌」, 135~139면. 『海槎日記』, 1763년 12월 3일.

항목으로 되어 있다. 「日東壯遊歌」에는 액을 막기 위하여 대구통인이 적삼을 달라고 간청하자 정사가 “사람의 죽고 살기 한 옷에 달렸으랴”라고 거절한다는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다. 김인겸은 正使와 다른 배를 타고 있으나, 「日東壯遊歌」는 『海槎日記』와 서술순서와 세부항목에서 일치하고 있다.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日東壯遊歌」는 서술 중에 작가의 존재가 표면에 자주 드러난다. ① 출발의 객수에서 「日東壯遊歌」는 “배 안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海槎日記』는 “去國之懷 人情固然”이라고 하였다. 감정의 표출이라는 면은 일치하지만 「日東壯遊歌」는 “내 신세”라고 하여 작가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日東壯遊歌」는 풍랑을 만난 일을 서술하는 중간에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간단 말고”라고 하여 지향할 곳 없는 작가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으며 “우리”라고 하여 작가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둘째 비유의 성격이 다르다. 두 작품은 풍랑이 비유로 표현된 점은 일치한다. ① 「日東壯遊歌」에서 풍랑은 “배가 나뭇잎 같다”거나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떨어지는 듯하다” “태산같은 성난 물결, 성난 고래” 등 대상의 動作을 나타내는 비유어로 표현된다. 『海槎日記』에서 풍랑은 “구만리에 오르는 듯(高而上者 九萬里天 低而下者 若墜千仞之坑)” 등 대상의 狀態를 나타내는 비유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비유어의 차이는 배 안의 모습을 표현함에도 드러난다. ① 배 안의 모습에서 요강타구의 훌어짐, 사람들의 구토라는 세부항목은 두 작품에 일치한다. 「日東壯遊歌」에서 요강타구의 모습은 “자빠지고 엎더지고”이고 『海槎日記』에서 요강타구의 모습은 “서로 부딪쳐 나뒹굴다(濁缸唾壺 自相撞擊)”이다. 「日東壯遊歌」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유어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海槎日記』는 대상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배 안의 사람들에 대하여 「日東壯遊歌」는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 “배 房에 누운 사람 뒤쳐지고 엎어지고 오줌누던 李裨將은 요강 안고 자빠지고 앉았던 任都事는 筐에 치여 넘어졌네”²⁷⁾라고 하여 인물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海槎日記』는 “중한자는 속이 메스꺼워 구토하여 인사불성(重者惡心嘔吐不省人事)”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27) 「日東壯遊歌」, 137면.

「日東壯遊歌」는 『海槎日記』와 소채선택, 서술순서, 세부항목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표현에서 「日東壯遊歌」는 작가의 감정이 묘사의 중간에 표출되거나 작가의 존재가 표면에 드러나는 점과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유어에 의한 표현이란 점에서 『海槎日記』와 차이가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김인겸의 潔身이란 土意識과 동작을 나타내는 비유어에 의한 표현은 「日東壯遊歌」가 『海槎日記』와는 다른 일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에 대한 인식의 비교

먼저 김인겸과 조엄이 일본의 기술문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華夷論과 관련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서 일본의 기술문명에 대한 소재는 ① 고구마 ② 水車 ③ 물레방아 ④ 舟橋이다. 작가가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나 쓰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두 작품에 일치한다. 김인겸과 조엄은 고구마에 대하여 각각 “그 씨를 가져다가 우리 나라에 심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흉년에 먹게 하면 좋겠지만 시절이 너무 추워 가져가기 어려운데 종자를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거나 간에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가히 흉년을 지낼 자료로서 좋을 듯하였다”²⁸⁾라고 한다. 고구마의 쓰임이 백성의 흉년 구제라는 愛民에 바탕을 둔 것이다. ② 水車 ③ 물레방아의 경우도 백성들의 삶이나 農事와 관련시키고 있다.²⁹⁾ 북학파

28) 『海槎日記』, 1764년 6월 18일.

29) 김인겸은 水車에 대하여 “인력을 아니들여…… 온 성중 거민들이 이 물을 받아 먹여 부족들 아니하니(「日東壯遊歌」, 183면)”라고 하여 城中 백성들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고, 조엄은 水車에 대하여 “만일 그 제작 방법을 읊겨다가 우리 나라에 사용한다면 논에 물을 대기 유리하겠다(『海槎日記』, 1764년 1월 27일)”라고 하여 백성의 농사와 관련시키고 있다. 물레방아의 경우 김인겸은 “하루 닷섬 짖는다네 그 중에 묘한 것은 겨자 다 절로 날려 어디로 가고 없고 쌀만 남았으니(「日東壯遊歌」, 1764년 3월 14일)”라고 하였고, 조엄은 “인력을 허비하지 않고 春磨하니(『海槎日記』, 1764년 4월 2일)”라고 하여 쓰임이 백성들의 농사일에 관련시키고 있다.

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지원은 『熱河日記』에서 조선 사회의 낙후성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의 기술문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문명에 대한 긍정은 청나라는 殷이지만 그 문물은 華로 민족과 문명을 분리한 새로운 華夷觀을 전제로 하고 있다.³⁰⁾ 이에 비하여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 나타난 작가들의 기술문명에 대한 관심은 愛民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실타개책이나 새로운 화이론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아 두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기술문명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술문명 외에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서 일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재는 임란과 관련된 것, 일본인과 관련된 것, 일본의 문물이나 산수이다. 세 가지 소재에 따라 「酬唱錄」에 수록된 漢詩를 통하여 김인겸과 조엄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것이며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 나타난 김인겸과 조엄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것이다.

3-1. 「酬唱錄」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의 비교

계미통신사 일행들이 탄금대, 조령 등을 지나면서 옮은 시들은 임란을 회상하며 비애를 나타내고 있다.³¹⁾ 하지만 비애의 성격이 과거사(임란치욕)의改正에 있는가 그렇지 않고 현재의 좌절감에 있는가 하는 점은 두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김인겸과 조엄의 한시를 비교할 것이다. 살펴볼 항목은 임란관련 사적과 交隣에 대한 것, 일본인에 대한 것, 일본의 산수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酬唱錄」에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임란관련 소재

- ① 交隣 : 출발에 즈음한 교린의 태도 : 「계미년 팔월 초3일에 나는 통신사의 정사로서 대궐에 나아가 하직을 올리고 국문을 나와 삼가 선고가 연경에 가실 적에 서교에서 지은 시에 차운함(歲癸未八月哉生明余以通信

30) 김명호,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120면.

31) 이해순, 앞의 책, 248면.

正使拜辭闕下出國門敬次先考赴燕時西郊韻)』, 「뜻을 보임(示意)」. 국서 전달에 즈음한 交隣의 태도 :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면서(江戶傳命)」, 「강호의 잡영으로 이서애의 죽지가 운차를 答(江湖雜詠用李西涯竹枝歌韻)」.

- ② 임란관련 사적 : 「탄금대를 지나면서(過彈琴臺)」, 「조령을 지나면서(過鳥嶺)」, 「조령에서 정묘년의 통신정사 판서 홍순보 어른의 현판시에 차운 함(鳥嶺次丁卯通信正使洪尙書純甫丈懸板韻)」
- ③ 김세렴 사적 : 「금절하에서 동명 김세렴의 투금시에 차운함(金絕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 「금절하(金絕河)」, 「금절하를 지나며(過金絕河)」.

2) 일본의 산수

『부사산(富士山)』, 「삼도를 지나면서(過三島)」, 「상근호(箱根湖)」.

교린에 대하여 김인겸과 조엄은 “부질없이 교린하려 옥백을 들고 가니, 오늘날 춘추대의가 부끄럽네(空將玉帛交隣去 今日多慚斷爛書)”³²⁾ “백년이 라 통신하는 이 강산 길에 다다르니 춘추의 대의서를 대하기 부끄럽네(百年通信江山路 羞對春秋大義書)”³³⁾라고 하여 交隣의 부끄러움(羞慚)을 春秋大義인 尊華攘夷³⁴⁾에 어긋남에 두고 있다. 그리고 조엄은 “시경이라 삼백편을 진작 외질 못했으니 어찌하면 덕화를 펴서 먼 오랑캐 안아 들이지 (三百葩詩曾未誦 若爲敷德遠夷柔)”³⁵⁾라고 하여 일본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본다. 국서전달에 즈음한 교린에서 김인겸은 “송백의 능 앞을 차마 지나왔으나, 임진년 난리 뒤를 밟아 온 것 부끄럽네…… 해 지나서 비로소 회답을 가지고 가니 비총의 수심 구름 눈물로 바라보노라(忍過松柏陵前路 愧涉龍蛇劫後瀾…… 經年始得回書去 鼻塚愁雲淚眼間)”³⁶⁾라고 하여 교린에 대한 부끄러움을 임란의 치욕에 두고 있다. 조엄은 “임금도 신하도 아닌데 위엄과 복을 만드니, 관백이란 도대체 어떠한 벼슬이랄까. 어찰을 전할 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임진년을 추억하니 눈물이 쏟아지네…… 화용정책 본래

32) 『海槎日記』, 「酬唱錄」, 「歲癸未八月哉生明余以通信正使拜辭闕下出國門敬次先考赴燕時西郊韻」.

33) 『海槎日記』, 「酬唱錄」, 「歲癸未八月哉生明余以通信正使拜辭闕下出國門敬次先考赴燕時西郊韻」.

34) 尊周室攘夷狄 皆所以正天下也. 『論語』, 「憲問」.

35) 『海槎日記』, 「酬唱錄」, 「示意」.

36) 『海槎日記』, 「酬唱錄」, 「江戶傳命」.

부터 왕의 뜻이 아닐진대, 한 질의 春秋 책을 밤 깊도록 읽으노라(匪辟匪臣作威福 不知關白是何官 親傳御札心如碎 追憶壬辰淚欲瀾…… 和戎本自非王意 一部麟書乙夜看)³⁷⁾ “신하도 임금도 아닌 새로운 패도로서…… 허위를 끼고 있는 서경 임금 알 바 없고, 스스로 높히여 동조대권신이라 칭 하네(非臣非主霸圖新…… 不識西京虛位帝 自尊東照大權神), 관백이 요즘에는 조근의 예를 거두네…… 교병은 쇠 사이 없이 대회주를 지키더라(關白伊來觀禮收…… 驕兵長戊大和州)”³⁸⁾라고 하였다. 조엄은 임란의 치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교린의 부끄러움을 關白이 임금을 능멸하고 전권을 휘두르는 君臣의 禮를 벗어난 점에 두고 있다. 김인겸과 조엄은 交隣의 부끄러움(羞慚)에 일치하지만 김인겸은 임란의 치욕이 부각되고 조엄은 禮가 부각된다.

신립은 주지하듯이 임란시 최후의 방어선을 담당했던 인물로 그의 패배로 전 국토와 왕실이 왜인의 손에 유린되었다. 김인겸은 신립에 대하여 “한 사람만 용거하였더라면 당시에 행장을 쉽게 벤 수 있을 텐데(若使一夫先據險 當時容易馘行長)”³⁹⁾이라고 한다. 김인겸의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사람만 지켰더라면(若使一夫先據險)”이라는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과거의 잘못을 현재 시점에서 改正하려는 작가의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인겸은 신립에 대한 비판보다는 “행장을 쉽게 베다”라는 雪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조엄은 신립에 대하여 “어쩌다 앉아서 금성탕지를 잊어버리고 공연히 행인들로 장단을 따지게 하나(如何坐失金湯勢 空使行人說短長)”⁴⁰⁾ “한신의 배수진을 한갓 들었을 뿐이고 초나라 이사의 법은 못 배웠네(徒聞韓背水 未學楚羸師)”⁴¹⁾라고 한다. 조엄은 신립에 대하여 배수진만 믿고 다른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신립의 사적에서 김인겸의 시는 雪恥라는 면이 부각된다. 특히 이러한 임란치욕에 대한 두 작가의 차이점은 김세령의 사적에서 부각된다.

37) 『海槎日記』, 『酬唱錄』, 『江戶傳命』.

38) 『海槎日記』, 『酬唱錄』, 『江湖雜詠用李西涯竹枝歌韻』.

39) 『海槎日記』, 『酬唱錄』, 『過鳥嶺』.

40) 『海槎日記』, 『酬唱錄』, 『過鳥嶺』.

41) 『海槎日記』, 『酬唱錄』, 『鳥嶺次丁卯通信正使洪尙書純甫丈懸板韻』.

김세령(1593~1646)은 1636년 통신사행 때 副使였는데 일본인에게서 받은 金錢을 회정할 때 金絕河에 모두 버린 인물이다. 김인겸과 조엄은 김세령의 投金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세령에 대하여 김인겸은 “오늘 세분 대부를 돌아보니, 충신하고 독경하며 씩씩하고 엄격하다오. 나그네 보따리가 셋은 듯이 맑으니 전현과 더불어 짹이 될만하네. 만약에 저 백수와 같지를 않다면, 부끄러운 땀방울이 솟아나지 않겠는가.(願我三大夫 忠敬又莊栗 歸橐清如洗 可與前修匹 有不如白水 能無愧汗出)”⁴²⁾라고 하였다. 김인겸은 三使臣이 김세령과 짹이 될 만하다고 칭송한 다음 만약 三使臣이 김세령과 같지 않다면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인겸은 三使臣이 김세령을 닮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김인겸 외에 세문사들의 시도 발화가 三使臣을 향하고 있다. 성대중은 김세령에 대하여 “원수의 나라에서 선물받은 황금덩어리, 쓰자하면 진실로 한 곳만이 아니거늘(譬庭有贐金 用之諒不一)…… 오늘날 명령 받든 사신들까지도 전현과 더불어 짹이 되길 원한다오(至今奉使人 願與前修匹)”⁴³⁾라고 한다. 三使臣이 김세령을 닮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성대중은 김세령이 투금한 이유를 忿讐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여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인다. 원중거의 시도 김세령이 일본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의미와 三使臣을 향한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다.⁴⁴⁾ 조엄은 김세령에 대하여 “어찌 돈없는 한탄에 몽매하리오, 물질은 사람의 득실만 같지 못하네. 자고로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니(豈昧亡錢歎 不若人得失, 自來威生廉)”⁴⁵⁾라고 한다. 조엄은 김세령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清廉을 유지한 것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의 清廉을 본받으려 한다. 결국 김세령의 사적에서 김인겸의 시는 일본에 대한 작가의 적대감이 개입되어 있으나 조엄의 시는 清廉과 같은 교훈적 의미에 비중을 두

42) 『海槎日記』, 「酬唱錄」, 「金絕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

43) 『海槎日記』, 「酬唱錄」, 「金絕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

44) 원중거의 시는 “너희 나라 황금을 너희 나라 강에 던지니, 내 마음을 내가 끝내 상실하지 않은 거야. 맑은 바람 속연히 東夷의 땅을 휩쓰니, 이욕을 탑내는 자는 마땅히 몸이 떨리리(汝金投汝水 我心不失 清風肅東夷 饒者宜戰慄)”(『海槎日記』, 「酬唱錄」, 「金絕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이다. “너희 금을 너희 강”이라고 하여 “너희(일본)”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화가 청자를 향하고 있다.

45) 『海槎日記』, 「酬唱錄」, 「金絕河次金東溟世濂投金韻」.

고 있다.

일본 산수에서 김인겸은 “남방에 높이 솟아 여러 산의 종이 되고, 산마루 영추에는 용이 잡겨 있다는군…… 하느님이 나를 위해 안개를 걷어 주어, 갠 날에 우뚝 섰는 그 모습을 보네 그려(屹作南方衆峯宗 靈湫其頂有潛龍…… 天公爲我塵氣掃 壯觀晴空特立容)⁴⁶⁾”라고 하여 승경을 賛嘆한다. 이런 점은 조엄의 시에도 나타나지만 김인겸의 시와 구별되는 점도 있다. 조엄은 “부사산이 눈에 묻혀 학은 허공을 타누나. 어리석다 진시황 헛되이 약을 찾고, 망령되다 제나라 사람 부질없이 비결 밑네. 동토에 명교의 낙지가 많으니, 나와 함께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자꾸나(富山峰雪鶴乘虛 愚哉秦帝徒求藥 妄矣齊人謾信書 東土自多名教樂 吾行諸子可歸歟)”⁴⁷⁾라고 하여 삼신산이 부사산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우월의식을 드러낸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조엄은 “백두산 마루에도 큰 못이 있으니, 남피에서 어느 해에 바다를 건너갔던고(東土白頭山有澤 南皮渡海問何年)”⁴⁸⁾라고 하여 일본산수의根源이 조선에 있다고 한다.

『酬唱錄』에서 교련에 대하여 두 작가는 羞慚라는 점은 일치하지만, 김인겸은 임란의 雪恥가 부각되고 조엄은 禮라는 면이 부각된다. 신립에 대하여 김인겸은 임란의 雪恥에 비중을 두고 조엄은 신립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산수에 대하여 김인겸은 賛嘆이 나타나지만 조엄은 우월의식이 드러난다. 결국 김인겸의 시에는 임란의 雪恥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조엄의 시에는 禮 우월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2.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의 비교

전술하였듯이 일본인식과 관련된 소재는 임란에 관련된 것, 일본인과 관련된 것, 일본 산수나 문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중에서 일본인과 관련된 소재는 소재별로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일본인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일본인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소재로

46) 『海槎日記』, 『酬唱錄』, 「富士山」.

47) 『海槎日記』, 『酬唱錄』, 「過三島」.

48) 『海槎日記』, 『酬唱錄』, 「箱根湖」.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관련 소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임란과 관련된 소재 : 신립에 대한 사적(단금대, 조령), 임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金絕河의 김세렴 사적
- 2) 일본인과 관련된 소재
 - ①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소재 : 「공통」 正使가 肥前州의 太守가 보낸 전복을 護行正官 平如敏에게 줌. 「日東壯遊歌」 金仁謙이 일본 선비 전승산이 준 예물을 거절함 · 일본문사 인평이 준 예물을 거절함, 일본문사가 사신일행을 이별함. 『海槎日記』 대마도주와 처음 만남.
 - ②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소재 : 「공통」 壱岐島의 여인들의 풍습, 壱岐島에서 藍島로 가는 도중 舟船이 오지 않아 부기선이 난파됨, 왜인이 國書를 범함, 太學頭 林信言이 쓴 회답서를 수정함, 이정암 장로승이 예물을 불경하게 바침, 평수길의 사적(적간관, 대판성), 關白의 유래와 모습. 「日東壯遊歌」 일본인이 日供을 주지 않음, 일본인의 간교함.
- 3) 일본산수와 문물과 관련된 소재
 - ① 일본산수와 관련된 소재 : 「공통」 비파호의 승경, 富士山의 승경, 상근택의 승경. 「日東壯遊歌」 가녹도의 승경. 『海槎日記』 대청으로 가는 도중 호수의 승경, 복선사의 승경, 청건사의 승경
 - ② 일본문물과 관련된 소재 : 대판성의 변성, 西京의 변성, 강호의 변성

이상의 각 부분에 대한 소재 중 1) 임란과 관련된 소재에서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의 소재 선택에 차이가 없다. 2) 일본인과 관련된 소재는 작가의 직분에 따라 접촉하는 인물의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국가적인 모욕에 대한 것, 日供에 대한 것, 일본인의 풍습, 關白, 韶황 등에서 일치한다. 3) 일본 산수와 문물에서 산수의 소재는 부사산, 상근택 등이고, 문물의 소재는 대판성 · 서경 · 강호 등으로 두 작품에 차이가 있다. 「酬唱錄」에 있는 소재들이 주로 임란관련의 소재, 교린에 대한 것, 일본 산수에 대한 것임에 비하여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는 일본인에 대한 소재가 부각된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와 공통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기로 한다.

1) 임란과 관련된 소재 : 雪恥

漢詩에서 김인겸의 시는 임란의 雪恥가 부각됨에 비하여 조엄의 시는 우월의식과 禮가 부각됨을 언급하였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을 토대로 임란에 대한 두 작가의 태도를 비교하기로 한다. 다음은 「일동장유가」와 『해사일기』의 임란과 관련된 소재의 구절이다.

<자료1> 「日東壯遊歌」, 19면.

交龜亭 올라앉아 左右를 둘러보니 萬木은 參天하고 千峰이 뚫였으니 一夫當關 萬夫莫開 劍閣을 부숴하랴 슬프다 巡邊使가 智略은 있건마는 여기를 못 지키어 島夷를 넘게 한고 이 莫非 하늘이라 千古의 恨이로다 龍湫를 구버보니 雨後의 성년 瀑布 霹靂이 震動하고 白雪이 찾았더라 귀 눈이 먹먹하고 心身이 凜慄하다 글 하나 지어 뼈고 藍輿의 다시 올라……

<자료2> 「日東壯遊歌」, 35~37면.

黃山 말 같아타고 永嘉臺 올라가니…… 그 안은 湖水처럼 安穩하고 廣闊하다. 슬프다 壬辰年에 이 같이 좋은 地理 忠武公 李將軍이 지키어 防備하면 倭兵이 強타한들 제 어이 登陸하리 三京이 陷沒하고 乘輿가 播遷하사 거의 亡계 되었다가 皇恩이 罷極하사 天兵이 나온 後에 겨우 回復하였으니 奸臣이 誤國하여 講和는 무슨 일고 부끄럽고 憤한 길을 열 한 번째 하는구나. 한 하늘 못 일 怨讐 아주 잊고 가게 되니 丈夫의 怒한 터럭 冠을 질러 일어선다

<자료3> 『海槎日記』, 1763年 8月 3일.

임진년 난이 일어났는데 대개 수길이 독사와 같은 성질로 강포함을 믿고 대명천조를 침범하려고 하여 먼저 칼날을 우리 조선에 옮겼던 것이다. 8년 동안에 계속되는 싸움에 가는 곳마다 잔멸하여 두 등이 욕을 당하고 거가가 멀리 파천하여 한 구석 우리나라가 거의 이적의 땅이 될뻔하였는데 명나라 신종황제가 누차 큰 군사를 출동시켜 구원하여 왜노를 모두 쫓아 내어 우리 나라를 완전하게 해주었으니 아아! 황제의 은혜는 만세토록 잊기 어렵다.⁴⁹⁾

<자료1>에서 김인겸은 신립이 “一夫當關 萬夫莫開”라는 지리의 이점을

49) 壬辰之亂作矣 守吉蓋以虺毒之性 恃其強暴 欲犯大明天朝 先爲移鋒於朝鮮 八年連兵所過殘滅 二陵受辱 車駕遠播 一隅青丘 幾爲夷狄之地 大明神宗皇帝 累發大兵救之 盡逐倭奴 載完東土 呴呼皇恩萬世難忘。

이용하지 못하고 도이를 넘게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이 “한 사람의 장부로 지키게 하였다면 島夷를 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어 과거의 일을 改正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자료2>에서 김인겸은 수비하는 관리가 “이순신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자료2>는 <자료3>과 “두 능이 욕을 봄, 거가의 파천, 명나라의 구원”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교린을 거론하는 자와 교린 자체에 대한 분노가 직설적으로 표출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은 김인겸의 漢詩에서 보였던 태도와 일치한다. 김인겸은 김세렴에 “金東溟이 여기 와서 穢놈이 주던 金과 銀을 물 속에 다 던지고 빙손으로 돌아오니 옛 사람의 맑은 바람 뉘 아니 欽慕하리⁵⁰⁾”라고 하였다. 김세렴이 금은을 버린 이유를 “예놈이 준 것”에 두고 있다. 『海槎日記』에서 사적의 내용은 “김세렴이 남은 일공미를 일본 봉행에게 주니 봉행이 금으로 바꾸어 김세렴에게 준다. 김세렴은 그것을 버리다”⁵¹⁾이다. 『海槎日記』는 김세렴이 투금한 이유를 “봉행이 금으로 바꾸어 준” 것에 두고 있다. 김세렴이 물질을 받는 것이 사신으로서 부당하기 때문에 버린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을 보아 「日東壯遊歌」에 임란에 대한 치욕이 김세렴에 대한 사적의 서술에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임란과 관련된 소재에 대하여 가정법이 사용되고 交隣에 대하여 분노가 표출되는 점, 김세렴의 투금을 원수에게 받은 것으로 보는 점은 「酬唱錄」에 수록된 漢詩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雪恥가 두드러진 점은 김인겸의 성격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본인에 대한 인식의 비교 : 인물의 성격(인정 있음, 강포함), 인간의 性 선행연구는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복합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

50) 「日東壯遊歌」, 199면.

51) 初六日…… 在昔丙子信使任參判統金東溟世濂黃漫浪호(戶↓木)奉使回還時 以日供餘米給彼人 彼人貿黃金 追送於中路 使臣以其金投諸此水 後人因稱投金河 清風百世 『海槎日記』甲申年 二月 初六日.

다.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소재를 공통되는 것과 각 작품에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肥前州의 太守가 보낸 전복을 護行正官 平如敏 에게 주다. 「일동장 유가」 일본선비 전승산의 예물. 일본문사 인평의 예물. 일본문사들과 이별. 『海槎日記』 대마도주와 처음 만남.

비전주의 太守가 사신에게 보낸 전복을 호행원 평여민에게 준다는 내용은 두 작품에 공통으로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구절이다.

〈자료1〉 「日東壯遊歌」, 133면.

肥州太守 보낸 것이 花鰻 模樣 같은 것을 櫃에 가득 넣어다가 使上께 드리오니 同行들 나눠 주고 倭奉行 덜어 주니 하나도 아니 받고 도로 와 드리거늘 使相이 물으시니 倭奉行 對答하되 “제 아비 살았을 제 배속에서 바람 만나 탄 배가 굵이 나서 물이 펄펄 들어오되 막을 計巧 전혀 없어 아주 죽게 되었더니 어디서 큰 生鰻이 그 굵에 부딪히니 물이 전혀 아니 들어 因하여 살아나니 子孫에게 遺言하여 먹지 말라 하매 恩惠는 感激하나 못 먹고 드리나이다” 들으매 奇異하다. 비록 몹쓸 倭놈이나 아비 遺言 지키는 양 人心이 있다 할다.

〈자료2〉 『海槎日記』 1763년 11월 23일

일찍이 듣건대 연해에서 받은 삼중을 혹 차왜에게 대신 주는 일도 있다 하므로, 호행정관 평여민에게 내어 주었다. (평여민은) 조부가 한 번은 뱃길을 가다가 배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뻔하였는데 훌연히 생전복이 새는 구멍에 붙어서 살아나게 되었으므로 그의 자손되는 자는 이 때문에 전복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한 일이다.⁵²⁾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는 “정사가 차왜에게 생전복을 주다-차왜의 조상이 전복의 은혜를 입다-차왜가 생전복을 거절하다”라는 내용이 일치한다. 표현에서 두 작품은 차이가 있다. 〈자료1〉의 「日東壯遊歌」는 작가가 ‘저의 아비가 살았을 때 왜 봉행이 어찌하다’와 같이 왜봉행의 말을 요약하

52) (1763년 11월) 二十三日…… 曾聞沿海所受杉重 或有替給差倭之事 故出給護行正官平如敏 則謂以其祖曾於水行 船漏水入幾至危境 忽有生鰻 貼付漏穴 得以濟活 故爲其子孫者 因此而不食鰻魚云 可異也

다가 마지막 구절에서 “감격하나 못 먹고 드리나이다”와 같이 왜 봉행의 말이 직접 인용한다. 작가의 요약서술 중심에서 인물 말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말 속에 “子孫에게 遺言하여 먹지 말라 하매”와 같이 조상의 유언이 인용되어 조상의 遺言을 드러내고 遺言에 순종하는 왜 봉행 “나”的 모습을 형상화한다. 『海槎日記』는 작가가 왜 봉행의 말을 요약서술 하여, 왜봉행의 형상화보다는 왜봉행의 일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물의 형상화와 요약서술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동일한 내용에서 작가의 일본인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조엄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상한 일이다(可異也)”라고 하였다. 봉행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면보다는 “전복이 사람을 구하였다”는 설화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김인겸은 “비록 몹쓸 왜인이나 인심(人心)이 있다 한다”라고 하여 부친의 유언을 지키는 왜봉행의 성품에 초점을 둔다.

작가가 일본인과의 접촉에서 야기된 일로 일본인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서 그 구절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3> 「日東壯遊歌」, 229면.

十一日 回程할새 비를 맞고 길을 떠나…… 임번평인 黃彥明이 비 맞고 따라 오되 나무 신에 雨傘 받고 三十里를 걸어와서 十顛九沛하여 밤들개야 와서 보니 精誠이 거룩하고 義氣도 있다 할세. 各各 贈行 많이 하니 至誠으로 주는지 라 아니 받기 불쌍하다. 조금씩 더러 받고 글을 다 次韻하여 筆墨으로 答禮하다. 그 中에 묵정 한이 눈물지고 슬퍼하니 비록 異國 사람이나 人情이 無窮하다. 十二日 藤枝 오니 韓大年과 平英이가 百三十里 따라와서 차마 못 離別하여 우리 옷 불들고서 泣涕如雨하다가 밤든 後에 돌아가서 오히려 아니 가고 길 가에 서 있다가 우리 가마 곁에 와서 손으로 눈물 씻고 목메어 우는 舉動 慘酷하고 奇特하니 마음이 좋지 아니해. 뉘라서 穢놈들이 奸邪하고 恢하다던고 이 舉動 보아하니 마음이 軟하도다.

<자료4> 『海槎日記』, 1763年 11月 2日.

2일(을묘) 맑음. 동북풍이 불었다. 서산사에 머물었다…… 도주가 낮쯤에 보러 온다 하고서 해가 저물어서야 나오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행례할 때 실수할까 염려되어 수없이 여러번 사사로이 습의를 행하다가 절로 늦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동래부에 있을 적에 또한 들으니 차왜들은 잔치할 때 무사히 예를 치

르게 되면 다행으로 여겨 사사로이 서로 치하한다고 하였다. 비록 무식한 오랑캐의 무리일지라도 오히려 行禮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실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또한 일분의 羞惡之心이 있다고 하겠다. 또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禮義 바르기로 소문이 났으므로 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예를 행할 때에 더욱 생각을 한 것은 반드시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예의가 천하에 중히 여겨짐과 忠信이 오랑캐 지방에도 행해질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으니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온 자가 스스로 예의를 손상시켜 이웃 나라에 업신여김을 당해서야 더욱 되겠는가?⁵³⁾

<자료3>은 일본인 문사들이 조선인 문사들과 이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일본인의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극적 행위로 되어 있다. 황언명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삼십리나 되는 거리를 나무신에 우산을 받치고 십전구폐하여 찾아온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하며 찾아오는 정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한대년과 평영은 “웃을 불들고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 행위 “밤든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신일행을 지켜보며 눈물 흘리는” 행위가 제시되었다. 이것도 일본인들이 사신일행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정성을 형상화한다. 김인겸은 일본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비록 異國사람이지만 人情이 있다”거나 “마음이 연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았을 때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禮에 맞다거나 禮에 준거한 행위보다는 일본인이 사람을 사귐에 인정이 있다거나 정성을 다 하는 인물의 성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⁴⁾

53) (1763年 11月) 初二日…… 島主謂以午間來見 而日暮始出 故問其由 則爲慮行禮時失措 私行習儀 不知其數 自致日晚云 余在萊府也 亦聞差倭輩宴享時 如得無事行禮則大以為幸 私相致賀云 雖蠻貊無識之類 猶以行禮爲重 失禮爲愧 亦可謂有一分羞惡之心矣 且念我國以禮義聞於天下 彼人之與我人行禮時 尤爲致念者 其必以禮義之邦而然也 推此而觀 則禮義之見重於天下 忠信之可行於蠻貊 可驗矣 使乎他邦者 尤何可自損禮義見侮於隣國也哉。

54) 「日東壯遊歌」에서 일본인의 말과 행위를 묘사하여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는 선물을 바치는 경우에도 드러난다. 김인겸이 일본인 선비인 전승산에게 시 8수를 지어주자 전승산은 김인겸의 뛰어난 詩材를 칭찬하며 “소국의 천한 선비로 태어나서 장한 구경을 하였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며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서 예물을 바치는 모습과 김인겸이 金銀 禮物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전승산이 다시 나가 감자와 雪糖을 구해와서 至誠으로 권하는 모습, 일본인 승려 인평이 明畫器를 선물하면서 “복부하여 지성으로 간청하되 이것이 親命이니 비옵나니 선생네는 물리치지

「日東壯遊歌」가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일본인의 사람을 대하는 정성을 그리고 있다면 『海槎日記』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료4는 『海槎日記』에서 正使의 대마도주에 대한 인상을 기술한 것이다. 대마도주가 낮쯤에 보리 오기로 약속하였는데 행례를 수십 번 연습하다가 저녁 늦게 찾아온다. 조엄은 대마도주가 禮를 중히 여기는 인물이라고 여긴다. 조엄은 이것을 보아 일본인에게 羞惡之心이 있다는 점과 오랑캐도 禮義로 教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조선만이 中華라는 생각에서 오랑캐도 禮를 아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조선인이나 오랑캐가 모두 羞惡之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엄은 일본인의 俗은 禮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華夷의 性에 구별이 없으므로 禮義로 가르치면 天性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⁵⁾

마음소서"(『일동장유가』, 211면)라는 말은 일본인이 사신을 대하는 정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 55) 『海槎日記』에서 주위 사람들이 일본인이 日供을 자주 거르고 일본인이 간교하다고 불평하자 조엄은 秉彝는 다 같이 하늘에서 타고났으니 거짓이 습속으로 된 중에도 진실한 자가 있으며 장영이 촉사람을 추나라와 노나라 사람으로 대하여 亂民이 모두 良民으로 변화시켰듯이 일본인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二十七日……渡海以後一行上下有事輒稱倭人之奸巧余以為秉彝之心同得於天許偽成俗之中亦豈無眞實者乎今若人人而謂其詐事事而疑其僞則彼亦人耳豈不冤哉且他國之事例既未詳悉徒憑一時之傳聞輒懷疑慮則亦安知所聞之不錯所見之有碍乎昔張詠治蜀待以鄒魯之人亂民皆化爲良民此義固難一責之於殊方染俗而忠信蠻貊之訓宜着心頭矣『海槎日記』癸未年十一月二十七日). 조엄은 일본인도 天性(秉彝)이 있다고 보았으며 일본인의 詐僞는 본성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染俗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본인의 俗과 性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 조엄은 일본 땅 좌수포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일본인을 보고 왜인이 칼을 찬 모습, 왜인 남녀의 머리모습, 여인의 黑齒風俗, 왜인 남녀의 의복모습에 대하여 禮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禮의 어긋남은 일본인이 풍속에 젖어 마땅한 敎養이 없기 때문으로, 禮義로 교양한다면 풍속의 나쁜 것이 없어지고 天性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初九日……留佐須浦……已嫁者染齒未嫁者與寡婦及娼女則並不染齒聞染齒之法爲其夫誓心者而齷瀆之風無異禽獸云極可醜也……初十日……留左須浦彼人之啁啾言語末由曉其一端而至於小兒啼哭之聲男女急笑之音與我國無異以其發於同得之天性無關於異音之方言而然耶以此推之秉彝倫常之天夫豈有異哉只緣教養之失宜以致華夷之有別苟能教之以倫綱導之以禮義則亦可以移風易俗變夷導華以復天性之固有者其何間於啼笑之同然於一天之下者也倭人之法死者不用棺槨灰葬而坐置於木桶中翌日埋之於寺刹之近地所謂神牌藏於寺刹祭時則仍行於寺刹云可謂無識之甚矣『海槎日記』癸未年十月九-十日).

결국 「일동장유가」에서 김인겸은 일본인의 인심이나 인정과 같이 인물의 품성으로 일본인을 궁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海槎日記』에서 조엄은 인간의 人性이 구별이 없음으로 일본인을 궁정하고 있다.

작가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소재를 공통소재와 각 작품에만 있는 소재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학두 임신언이 쓴 회답서의 수정, 關白의 모습과 유래, 이정암 장로승의 불경스러움, 남도로 가는 도중의 난파하였는데 일본 예선이 오지 않음, 왜인이 國書를 범함. 「日東壯遊歌」 일본인이 日供을 자주 거름, 일본인이 간교함, 일본인의 풍속.

왜황에 대한 기록도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기⁵⁶⁾는 하지만 두 작품 만의 특징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 일본인과 있었던 일이나 關白과 평수길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두 작품을 비교한다. 일반 일본인과 있었던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太學頭 林信言이 쓴 회답서의 수정에 대한 것이다.

회답서 수정은 관백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회답서 草한 것을 정사가 보고 불경한 부분이 많아 고친다는 내용이다. 정사는 회답서를 초안한 太學頭 林信言에게 고칠 것을 요청하지만 임신언이 여러 평계로 거절한다. 두 작품은 임신언으로 하여금 회답서를 고치게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海槎日記』에서 정사는 태학두에게 3번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여 회답서가 고쳐지게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정사는 태학두에게 곤욕을 당한다. 「日東壯遊歌」에서 네 문사가 필답할 때 임신언에게 고칠 말을 암시하여 회답서가 고쳐지게 된다. 다음은 이 구절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1> 「日東壯遊歌」, 223면.

이윽고 林信言이 제 아들 데리고서 한가지로 왔다커늘 넷이 함께 나가보니

56) 왜황에 대한 것은 두 작품의 1764년 1월 28일조의 기록에 있다. 두 작품은 왜황은 政事を 관백에게 맡기고 보름은 재계하고 보름은 飲酒로 지내며 불교를 숭상하여 王道가 없다는 점과 비록 周禮를 참조하여 맏이로 세습하지만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가 세습하므로 왕위 계승이 禮가 아니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細細히 次韻하여 보내마 이르고서 回答書 고칠 말을 間間히 써서 뵈니 太學頭
熟視하고 對答도 아니 하는지라 憶悞카 가이 없어 答言을 또 請하니 그제야 써
서 뵈니 謹諾이라 하였으되 그것이 우리 쓴 것 모르는 듯 싶은지라 憶悞하고
念慮로와 茶菓으로 待接하고 우리 먹은 飲食을 따라온 두 사람을 懇懃히 待接하
니 感激하고 기뻐하여 두세번 致謝하고 크게 좋아하는 舉動 낮에 나타나는구나.
다시 졸 뜻 뵈는구나.

임신언과 필담에서 문사들은 태학두를 “은근히 대접하거나” “세세히 차
운하여 보내마” 안심시키고 “회답서 고칠 말을 간간히” 써서 그를 속이고
있다. 임신언은 문사들에게 속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물이고
문사들이 간간이 쓴 글자를 숙시하고 있지만 문사들이 “쓴 것을 모르는” 無
識한 인물이다.⁵⁷⁾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는 關白의 모습에도 드러난다.

사신들이 강호에서 관백에게 국서를 전달하면서 關白의 모습을 보게 된

57) 일본인의 무식과 관련된 구절은 대마도주에 대한 것도 있다. 對馬島를 출발한 사신
의 배가 藍島로 가는 도중 일본 예선이 오지 않아 부기선이 파선된다. 사신일행은
問安과 杉重을 거절하고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하는데 대마도주가 병을 평계로 오지
않다가 사신 일행을 뵈러 온다(『日東壯遊歌』, 143면, 『海槎日記』, 1763年 12月 3~8
日). 대마도주가 찾아와서 사신 일행과 필담으로 예선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대마도주
는 사신들의 질책이 담긴 필서를 펴보지도 않고 종자를 준다. 이것에 대하여 『日東
壯遊歌』는 “아예 펴 보잖고 종자를 내어주니 글자를 모르기에 볼 길이 전혀 없어 글
하는 놈에게 뵈려하고 그저 내어 주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칭졸한 말이 어려워 가
지고 나가도다”(『日東壯遊歌』, 143면)라고 되어 있다. 대마도주는 문자를 알지 못하
는 무식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海槎日記』는 대마도주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작가
의 생각이 확장되어 있다. 조엄은 예선의 관리는 축전주의 소관이지만 예선으로 인
한 조선사신들의 낭패는 호행을 말은 대마도주의 책임이니 만일 강호에 가서 대마
도주가 죄를 받거나 난처한 일이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조엄의 내면세계가 표출되어
있다. 대마도주가 필서를 펴보지 않고 종자를 준 것에 대하여 조엄은 “그것은 혹 문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펴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 다시 독촉하고 싶었으나 어
찌 남을 무료한 지경으로 괴롭혀서야 되겠는가? 또 저 사람들은 모든 공사를 즉석에
서 결단하지 않고 반드시 사사로이 소상히 한 뒤에 회보하니 이것은 그 사세가 그럴
듯도 하다(初七日…… 馬州守受而不披覽 替給其從者 使首譯更傳以披覽相議之意 則
馬州守答以歸後當詳覽而仰報云 其或以不識文字之故 無可披見而然歎 更懲督之 而豈
可困入於無聊之地乎 且彼人凡於公幹 未嘗卽地決斷 必爲私自消詳而後 始乃回報 此其
事勢亦似然矣 『海槎日記』癸未年十二月初七日)”라고 하였다. 조엄은 대마도주가
문자도 모르는 無識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즉석에서 결단하지 않는 慎重한
인물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복합되어 있다.

다. 「日東壯遊歌」에서 관백은 “낯이 작고 턱이 뾰족 情神은 있지마는 거동이 輕灑하고 머리를 흔덕이며 摺冊을 뒤적이고 瞻視를 자주하여 鎮重하지 아니⁵⁸⁾ 한 인물이다. 『海槎日記』에서 조엄은 관백에 대하여 “그의 용모는 대개 이마는 넓고 턱은 좁아서 경박한 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나이는 30에 원숙한 뜻이 없었으니 실로 바라보매 임금답지 못한 자태가 있었다. 그렇지만 능히 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습인 까닭으로 근기가 이미 깊어서 갑자기 동요하기 어려운 때문에 그러리라”⁵⁹⁾라고 한다. 關白은 경박한 모습으로 임금답지 않다고 한 점은 두 작품에 일치한다. 『海槎日記』에서 關白의 경박한 모습은 “이마가 넓고 턱이 좁다(額廣頤狹)”고 하여 작가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은 외모의 형용이다. 뒤 이어 작가는 “경박한 상이다(顯露飄輕之象)”라고 하여 외모를 설명하고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關白의 경박한 모습은 “머리를 흔들다, 무서책을 뒤적이다, 둘러보는 것을 자주하다”와 같이 행위묘사로 되어 있다. 특히 關白의 경박한 행위를 나열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회화화는 열등하게 형성화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들보다 우월하다⁶⁰⁾는 작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⁶¹⁾ 이러한 회화화는 결국 關白이 임금의 능력을 수행하기에는 無能하다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關白은 일본의 실질적 통치자로 현 관백에 대한 무능뿐만 아니라 關白이 실권장악에 대해서도 두 작품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關白은 陽成皇 때의 攝政인 藤原基經에서 비롯⁶²⁾되는데 安德天皇 때는 關

58) 「日東壯遊歌」, 219면.

59) 其容貌蓋是額廣頤狹 顯露飄輕之象 年可三十 未有圓熟之意 實有望不似之儀矣 然而能保此位者 以其世襲之故 根基已深 猥難動搖而然也(『海槎日記』甲申年 二月 二十七日).

60) 김대행, 『詩歌詩學研究』, 이화여대 출판부, 1991, 236면.

61) 「日東壯遊歌」에 이와 관련된 예는 “날마다 언덕에서 嬷女들 모여와서 젖 내어 가리키며 고개 조아 오라 하며 볼기 내어 두드리며 손 저어 請도 하고 옷 들어 아래 뵈며 부르기도 하는구나(「日東壯遊歌」, 135면)”라는 구절이다. 일본인이廉恥가 없고 淫亂한 風俗을 드러낸 것인데 웨녀들의 부정적인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62) 天皇이란 칭호는 중국 周幽王 11년경 神武天皇(王攸野)에서 비롯되고 漢獻帝 建安6년에 女天皇(神功后)이 처음으로 섰다. 關白이란 명칭은 陽成皇 때의 攝政인 藤原基經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때부터 천황은 실권이 없게 된다. 安德天皇 때는 關白 源賴朝가 천황과 白河后를 몰아낸 일이 있다.

白인 源賴朝가 天皇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다음은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 나타난 源賴朝가 安德天皇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2> 「日東壯遊歌」, 151면.

- ① 源賴朝가 사납고 강성하다.
- ② 源賴朝가 (安德天皇의) 어미 白河后가 貪虐하고 淫亂하다고 하여 起兵하다.
- ③ 白河后가 쫓겨 天皇을 엎고 도망치다가 적간관 와서 죽다
- ④ 安德의 墓가 적간관에 있다.

<자료3> 『海槎日記』, 1763년 12월 27일.

- ① 安德天皇이 8세에 王이 되다.
- ② 攝政 平清盛이 궁궐을 어지럽혀 源賴朝가 西京을 함락시키다.
- ③ 平清盛이 천황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赤間關의 바다에 빠져 죽었고 白河后와 궁녀들도 빠져 죽었다. 源賴朝가 地皇을 다시 天皇으로 세웠다.
- ④ 安德天皇의 素像이 적간관에 있다.

두 작품은 어린 천황의 등극으로 나라가 혼란하자 源賴朝가 천황을 죽이고 실권자가 되었다는 점에 일치한다. 關白이 실권자가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日東壯遊歌」에서 이 부분의 구절은 “육백년전 源賴朝가 사납고 강성하여 安德天皇 팔세 먹고 그 어미 白河后가 貪虐하고 淫亂하고 起兵하여 와서 치니”이다. 백하후가 탐학하고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뢰조는 사납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백하후와 어린 천황을 몰아낸 자이다. 이 점은 김인겸이 “백하후는 어린 천황을 엎고 도망치다”라고 하여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부각시켜 天皇을 동정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을 보아 김인겸은 關白이 강포한 인물로 실권장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海槎日記』에서 이 부분의 구절은 “안덕천황이 나이 여덟에 사위하여 왜황이 되니 그의 대신 평청성이 궁금을 어지럽히며 그때 대장 원뢰조가 군사를 일으켜 서경을 함락하니”⁶³⁾이다. 平清盛이 궁금을 어지럽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작가다. 작가는 源賴朝는 어지러운 나라를 평정한 인물로 파악한 것이다. 이 점은

조임이 천황에 대하여 “평정성이 천황을 데리고 도망하다”⁶⁴⁾라고 하여 천황과 평정성에 대한 동정이 없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백의 성격은 평수길에 대한 사적과도 관련된다.

평수길에 대한 사적은 대판성의 사적, 적간관의 사적이다. 이중 赤間關의 사적에서 두 작품의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⁶⁵⁾ 赤間關의 사적은 평수길이 임란 때 사공을 죽인 곳이라는 내용이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는 평수길이 사공을 죽인 경위에 차이가 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자료3> 「日東壯遊歌」, 149~151면.

念七日 櫓役하여 赤間關 들어가니…… 壬辰年에 平秀吉이 우리나라 치러 을 제 주길이란 沙工놈이 역풍이 불리라고 發船을 아니하니 秀吉이 大怒하여 내어서 腰斬하고 배를 내어 놓으려니 果然 그 말같이 狂風이 크게 이니 秀吉이 가 뉘우쳐서 祠堂 짓고 碑를 세워 물 가운데 있다 하되 아프기에 못 가 보니라.

<자료4> 『海槎日記』, 1763年 12月 27日.

27일 기유 맑음. 동풍이 불었다. 赤間關에 묵었다…… 소창에서 나아가니 바다 가운데에 비석이 있기에 물으니 임진년에 왜선이 이곳을 지나다가 부서지니 수길이 그 사공을 죽이고 석표를 세워 뒷사람을 경계한 것이다.⁶⁶⁾

<자료3>은 임란 때 평수길이 조선을 치러올 때 사공 주길이 광풍이 분다고 하자 수길이 화가 나서 주길을 죽였고 나중에 광풍이 크게 일어 배들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이다. 「日東壯遊歌」에는 평수길과 사공 주길의 갈등

63) 盖於古石 安德天皇者年八歲 嗣爲倭皇 其大臣平清盛 濁亂宮禁 其時大將源賴朝 舉兵 陷西京(『海槎日記』癸未年 十二月 二十七日).

64) 清盛率安德西走 賴朝追及於赤間關 清盛負安德投于海…(『海槎日記』癸未年 十二月 二十七日).

65) 「日東壯遊歌」에서 김인첨은 대판성이 대하여 대판성이 수길이 도읍한 곳이라고 언급한 다음 “옛일을 생각하니 성난 털이 일어선다”(「日東壯遊歌」, 173면)라고 하여 임란의 치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海槎日記』에서 조임은 대판성이 수길이 도읍한 곳이었는데 수길이 죽은 뒤에 關白의 도읍지가 되었다(『海槎日記』甲申年 正月 二十日)라고 하여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간관의 사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한다.

66) 二十七日己酉晴東風 次赤間關……自小倉而進 海中有石碑 問是壬辰倭船過此致敗 秀吉戮其篙工 立石標 以戒後人云.

이 있다. 갈등의 결과 주길이 억울하게 죽었고 평수길은 벌을 받는다. 갈등에서 수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죽이는 강포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수길의 욕심이 결국 광풍에 의한 파손이라는 하늘의 징벌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료4>에는 왜선의 파선과 사공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어 사공이 파도를 헤쳐가지 못하여 죽은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 평수길에 대한 형상화는 없다.

일본문인, 대마도주, 관백, 평수길에 대한 기록에서 두 작품은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란 점은 일치한다. 「日東壯遊歌」는 이들 인물에 대하여 인물의 모습과 행위의 묘사, 갈등을 통하여 인물의 無能(無識)함, 강포함과 같은 인물성격을 형성한다. 이것을 보아 「日東壯遊歌」에서 김인겸의 일본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란 인식의 기준은 인물의 성격에 있다. 이에 비하여 『海槎日記』는 說理적 표현으로 일본인의 人性을 긍정하고 있다.

3) 산수의 勝景과 문물의 繁盛 : 雪恥, 우월의식

『酬唱錄』에서 김인겸은 일본산수의 승경을 찬탄하고 조엄은 조선산수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낸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에서 일본 산수의 勝景을 나타내는 소재들⁶⁷⁾ 중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은 「일동장유가」의 경우 비파호의 승경과 상근택의 승경이고 『海槎日記』는 부사산의 승경이다. 일본문물의 변성을 나타내는 소재는 공통이다.⁶⁸⁾ 『海槎日記』에는 이 소재들이 사실 설명으로 되어 있어 「酬唱錄」에 수록된 조엄의 漢詩작품⁶⁹⁾과 「일동장유가」를 비교한다.

일본 산수에 대하여 김인겸은 “왜놈주기 아깝다”(비파호)라고 하여 일본 산수의 승경을 부러워하면서 하늘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67) 일본 산수의 勝景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공통소재로 비파호의 승경, 부사산의 승경, 상근택의 승경이 있고 「日東壯遊歌」에만 있는 소재는 가녹도의 승경이며 『海槎日記』에만 있는 소재는 대청으로 가는 도중 호수의 승경, 복선사의 승경, 청견사의 승경이다.

68) 일본문물의 변성을 나타내는 소재는 공통소재가 대판성의 변성, 서경의 변성, 강호의 변성이다.

69) 「酬唱錄」에는 일본 문물에 대한 것은 조엄의 시만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갈못이 장하다고 하지마는 자취물과 같다”⁷⁰⁾(상근택의 승경)고 하거나 “천지나 백록담과 비교된다”⁷¹⁾(상근택의 승경)고 하여 일본산수가 조선산수보다 뛰어난 점을 찬탄하고 있다. 일본의 문물에 대하여 「日東壯遊歌」가 어렴의 번성, 인물의 번성, 부상대고의 재화, 구리기와로 만든 황금 채색의 집, 천간의 집 등을 찬탄하고 있음은 『海槎日記』와 일치한다. 단지 찬탄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두 작품이 차이가 있다. 다음은 「日東壯遊歌」에서 대관성의 번성에 대한 구절이다.

<자료1> 「日東壯遊歌」, 177면.

美濃守의 下處 곁에 높은 欄干 위에 앉아 四面을 바라보니 地形도 奇絕하고 人戶도 많을시고 百萬이나 하여 뷔다 우리나라 都城 안은 東에서 西에 오기十里라 하지마는 채十里가 못하고서 富貴한 宰相들도 百間집이 禁法이요 大 몸속 흙기와를 이었어도 壯하는데 壮할손 倭놈들은 千間이나 지었으며 그 中의 豪富한 놈 구리기와 이어 놓고 黃金으로 집을 꾸며 奢侈하기 異常하구나.…… 天下에 이러한 景 또 어디 있단 말고, 北京을 본 譯官이 行中에 와 있으되 中原의 壯麗하기 이어서 낫잖다네. 이러한 좋은 세계 海外에 排列하고 더럽고 못 쓸 씨로 丘穴을 삼아 있어 周平王的 入國하여 이때까지 二千年을 興亡을 모르고 한 姓으로 傳하여서 人民이 生殖하여 이처럼 繁盛하니 모를 이는 하늘이라 可歎하고 可恨일다.

김인겸은 문물의 번성함이 조선보다 뛰어나다고 찬탄하면서 이러한 번성을 준 것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한다. 하늘에 대한 원망은 이 시기 문사들의 시작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단지 김인겸은 “더럽고 몹쓸씨”라고 하여 하늘에 대한 원망이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감으로 김인겸은 “沃野 千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닮을손 이리 좋은 天府金湯 穢놈의 器物되어 稱帝稱皇하고 傳子 傳孫하니 개돌 같은 비린 類를 다 몸속 掃蕩하고 四千里 六十州를 朝鮮 땅 만들어서 王化에 沐浴 감겨 禮儀國 만들고자”⁷²⁾라고 하였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선이 오랑캐 일본

70) 「日東壯遊歌」, 207면.

71) 「日東壯遊歌」, 207면.

72) 「日東壯遊歌」, 185면.

을 교화한다는 것은 사신들과 문사들의 글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다 물 속 소탕하고 사천리를 조선 땅 만들다”라는 구절은 일본인을 教化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임란의 雪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조엄은 일본 산수에 대하여 조선의 산수가 일본의 산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⁷³⁾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⁷⁴⁾ 이에 더하여 조엄은 “일찌기 들으니 일본 산맥은 우리 나라에서 전녀왔는데…… 대개 백두산의 산맥이 남쪽으로 뻗어온 것은 조선을 형성하고 북쪽으로 뻗어간 것은 매우 멀었으니 흑룡강을 경유해 건넜는 줄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남쪽이건 북쪽이건 백두산의 지맥인 듯 싶다. 이제 부사산 역시 그 머리가 회고 꼭대기에 또 뭇이 있다고 하니 그도 혹시 백두산의 아손일는지?”⁷⁵⁾라고 한다. 일본산수의 근원은 조선산수에 있다는 우월의식이다. 조엄은 일본문물의 변성에 대하여 “변화롭다 대판성이여 예의의 나라는 조선이로세(繁華大坂城 禮義朝鮮國)”⁷⁶⁾이라고 하여 변성을 부러워하면서도 朝鮮이 禮義國이라고 대응한다. 그리고 “상구에게 빌려주어 이 낙을 향유케하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가의 선우로세(此與爽鳩私此樂 無生無滅佛單于)”⁷⁷⁾라고 하여 조엄은 서경의 변성을 부러워하면서도 일본이 佛家의 나라임을 강조한다. 조엄은 일본산수의 승경과 문물의 변선에 대하여 우월의식(根源, 禮)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산수와 문물에 대한 찬탄과 하늘에 대한 원망, 조선이 예의국으로 일본을 교화한다는 점은 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김인겸은 일본산수와 문물의 뛰어남을 찬탄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雪恥의 감정을 표출한다. 조

73) 前後詩章 或比於金剛山 而余曾踰摩天摩雲兩嶺 極為高峻 尚不欲比方於此山也 况金剛山萬二千白玉之峰 千萬狀奇異之景 其何可擬論於此耶(『海槎日記』甲申年 二月 十二日).

74) 이와 관련된 예는 『海槎日記』 1764년 2월 9일조에서 三神山은 부사산이 아니라 한라산·금강산·자리산이라고 한 구절이 있다.

75) 曾聞日本山脈 來自我國 而或傳自長鬚石脈渡海 由馬島歧島而入 或傳以白頭山餘脈由北海而來 盖白頭山麓之南來者為朝鮮 北去者甚遠 安知不由黑龍江而渡也 以南以北似足白頭山支脈矣 今者富士山亦白其頭 頂上又有澤云 其或是白頭山之兒孫耶(『海槎日記』甲申年 二月 十二日).

76) 『海槎日記』, 「酬唱錄」, 「大坂城」.

77) 『海槎日記』, 「酬唱錄」, 「重望倭京」.

엄은 일본산수의 근원이 조선이라는 우월의식과 조선이 禮義의 나라라는 우월의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漢詩에 나타난 김인겸과 조엄의 인식과 일치하므로 작가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고의 목적은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일본에 대한 인식이 작가의 성격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가사장르의 특성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고는 작가의 성격과 가사장르의 성격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작가별 차이점과 작품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海槎日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인겸은 庶出이라는 신분으로 가문의 떡을 보지 못하였고, 사행 중에 역관 비장들의 도전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는 書記라는 직책에 근거한 士을 내세운다. 그가 생각하는 士는 주로 “세상에 더럽혀짐”이나 “受辱”을 거부하는 潔身에 두고 있다. 「日東壯遊歌」는 『海槎日記』와 소재선택, 서술순서, 세부항목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海槎日記』에 비하여 작가의 표면화와 동작형의 비유어에 의한 표현이란 점에 차이가 있다. 작가의 표면화는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 있으며 동작형의 비유어는 인물묘사나 인물의 성격형성과 관련된다. 작가의 潔身이라는 士意識과 인물의 성격형성이라는 표현이 『海槎日記』와 다른 일본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두 작품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을 한 시의 비교,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의 비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酬唱錄」에서 김인겸과 조엄은 교린에 대한 부끄러움(羞慚), 임란의 비애, 산수와 문물에 대한 찬탄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특히 교린에 대하여 두 작가는 華夷論에 입각한 羞慚라는 점은 일치한다. 김인겸은 이에 더하여 임란의 雪恥가 부각되고 조엄은 禮라는 면이 부각된다. 일본의 산수에 대하여 김인겸은 賛嘆하지만 조엄은 조선 산수가 根源이라는 우월의식을 드러낸다.

『日東壯遊歌』와 『海槎日記』의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日東壯遊歌」에서 김인겸은 가정법으로 임란의 치욕을 改正하려 하거나 交隣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김세령의 투금을 원수에게 받은 것으로 보는 점 등으로 雪恥라는 면이 드러난다. 김인겸은 일본인의 모습, 행위묘지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형성한다. 김인겸은 일본인이 인정이나 정성이 있음을 긍정하고 無識(無能)함이나 강포함을 부정하여 일본인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인물의 성격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海槎日記』에서 조엄은 說理적 표현으로 일본인이 人性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의 산수와 문물에 대한 찬탄과 하늘에 대한 원망, 조선이 예의국으로 일본을 교화한다는 점은 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김인겸은 일본의 산수와 문물이 뛰어남에 대응하여 雪恥라는 감정을 표출한다. 조엄은 일본산수의 근원이 조선이라는 우월의식과 조선이 禮義의 나라라는 우월의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한시에 나타난 김인겸과 조엄의 인식과 일치한다.

이것을 종합하면 「日東壯遊歌」에 일본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雪恥와 일본인의 성격인 점은 당대 사행작품에 비하여 특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조엄의 시작작품들과 『海槎日記』에서 나타난 華夷의 人性이 동일, 禮儀의 優越意識등 주로 華夷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일동장유가」의 이러한 특징은 작가와 「日東壯遊歌」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동장유가」에서 雪恥라는 면이 부각된 것은 「酬唱錄」에 수록된 한시와 일치하므로 김인겸이 受辱을 거부하는 潔身의 土意識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日東壯遊歌」에는 일본인의 성격(인정, 강포함)이드러나는데, 이 점은 「日東壯遊歌」만의 특징이다. 인물의 성격은 인물묘사나 갈등 등 서사적 기법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데 19세기 이후 가사의 서사적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資料

- 金仁謙, 李民樹 校註, 『日東壯遊歌』, 탐구당, 1981.
심재완 校註, 『日東壯遊歌·燕行歌』, 교문사, 1984.
趙曠, 『海槎日記』.
『朝鮮王朝實錄』44卷, 國史編纂委員會, 1958.

2. 研究論著

- 김대행, 『詩歌詩學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박희병, 「조선후기 歌辭의 일본체험 「日東壯遊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
문당, 1992.
서울학연구소 편,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
구소, 1998.
엄경흠, 「정몽주의 명사행시에 관한 고찰」, 『석당논총』 17집, 동아대석당전통문화
연구소, 1991.
_____, 「韓國使行詩研究」,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이성후, 「日東壯遊歌研究」, 효성카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8.
_____, 『朝鮮後期 文學思想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정원표, 「신위 연행시 일고」, 『홍익어문』 10·11합집, 홍익대학 홍익어문연구회,
1992.
지영재, 「의제 연행시의 연구」, 『동양학』 26집, 단국대학 동양학연구소, 1996.
하우봉,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일지사, 1992.
한영우,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일지사, 1998.